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 <small>본입니다</small>
	배포일자	2023년 4월 6일(목) 총 6매	
담당 부서	인천문화 예술회관	담당자 • 기획운영팀장 차영주 ☎420-2710 • 담당자 유은미 ☎420-2739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최대의 쇼 버라이어티 뮤지컬!

- 4.21.~23. 인천문화예술회관 <뮤지컬 ‘브로드웨이42번가’ 인천공연>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브로드웨이의 대표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를 공연한다고 밝혔다.

스테디셀러 뮤지컬의 대명사 <브로드웨이 42번가>는 1980년 뉴욕 윈터가든 초연 이후 브로드웨이에서 5,000회 이상 장기 공연을 이어가며 흥행 불패 신화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쇼 뮤지컬이다.

토니어워즈 최우수 작품상과 안무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며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히트작임을 매 공연마다 입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6년 대한민국 최초의 정식 라이선스 뮤지컬로 시작해 최고의 스타들의 화려한 무대와 완벽한 탭댄스로 뮤지컬 대중화에 앞장 서며 관객들의 끊임없는 사랑에 힘입어 26년째 통련하고 있는 명실상부 지상 최대의 쇼 버라이어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내 초연 27주년을 맞이한 이번 시즌에서는 코로나 이후 오랫동안 문화생활에 목말라 있던 관객들에게 눈과 귀를 즐겁게 할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준비를 마쳤다.

흥겨운 스윙 음악과 함께 그루브가 살아 숨 쉬는 탭댄스의 중독적인 리듬, 그리고 수십 명의 앙상블이 선보이는 압도적인 단체 군무까지 관객들에게 행복한 활기를 불어넣어 줄 매력적인 쇼로 눈앞을 브로드웨이로 만드는 황홀한 마법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위기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그리고 있는 <브로드웨이 42번가>는 극 중 1930년대 대공황기 브로드웨이를 배경으로 다루는 만큼, 팬데믹을 경험한 현재 상황과 맞물리며 배우뿐만 아니라 관객들에게도 깊은 공감과 위로를 건네준다.

험난한 과정 속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열정과 노력을 바탕으로 시련과 좌절을 뛰어넘는 ‘꿈’을 다루는 이야기를 통해 어려운 시기를 거치며 어느새 꿈을 잃어버린, 지금 이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로 따뜻한 감동까지 선사할 것이다.

화려한 볼거리와 흥겨운 음악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희망의 메시지까지 완벽한 삼박자를 갖춘 <브로드웨이 42번가>는 이번 시즌에서도 사랑받는 공연의 가치를 여실히 증명할 예정이다.

올해로 26주년을 맞이한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제작: CJ ENM, (주)샘컴퍼니)가 신예 스타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최강 캐스팅을 선보인다.

<브로드웨이 42번가>는 극 중 뮤지컬 댄서가 되기 위해 시골에서 상경해 코러스 일을 하던 중 우연히 주인공 역할을 맡게 되며 스타가 될 일생 일대의 기회를 마주하게 되는 ‘폐기 소녀’의 꿈을 향한 이야기를 주요 서사로 다루고 있다.

뮤지컬계 스타의 산실이라고도 불리는 이번 공연은 1996년 한국 초연 이후 오랫동안 관객들에게 사랑받아온 만큼 황정민, 남경주, 양희경, 박해미, 최정원 등 뮤지컬 1세대부터 3세대를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사랑받고 있는 수많은 ‘폐기 소녀’들을 배출한 바 있다.

42번가 무대를 시작으로, 앞으로 큰 무대에서 공연계를 빛낼 뉴페이스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시즌에서 새롭게 폐기 소녀 역으로 합류한 신예 유낙원은 2018년 시즌의 앙상블로 데뷔했으며, 이번 작품을 통해 처음으로 대극장 주연을 맡아 감동적인 폐기 소녀 그 자체의 삶을 보여준다.

신인 같지 않은 놀라운 가창력과 연기력으로 평단의 호평을 받고 있는 유낙원은 “아직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영광이고 감사하다. 폐기 소녀 그 자체로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다”며 작품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더불어 빌리 로러역에 함께하게 된 뮤지컬계 샛별 이주순 역시 2017년 <브로드웨이 42번가>에서 앙상블로 뮤지컬 데뷔를 한 이력이 있다. 훈훈한 외모와 수준급의 댄스 실력으로 빌리 역과 싱크로율 100%를

자랑하고 있는 이주순은 “제가 살아온 시간과 ‘42번가’가 걸어온 길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 힘든 시기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뜨거운 열정을 보였다.

스타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폐기 소녀처럼 앙상블로 시작해 차근차근 성장해 마침내 주연으로 마주한 두 배우의 감동적인 서사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는 실제로도 무대 위 수많은 배우들이 꿈꾸고 이뤄낸 경험담이기에 ‘42번가’ 그 자체인 특별한 캐스팅은 꿈과 열정,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뮤지컬계 대표 디바 신영숙의 합류로 더욱 탄탄한 라인업이 구축됐다.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온 몸 짜릿한 무대 장악력을 보여줬던 그녀가 도로시 블록으로 변신해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관객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신영숙은 “행복한 웃음과 따뜻한 사랑이 있는 작품에 함께 하게 되어 설레고 기쁘다. 새로운 매력을 보여드리기 위해 많이 준비하겠다”며 새롭게 합류한 소감을 밝혔다.

반가운 얼굴의 새로운 캐스트뿐만 아니라 줄리안 마쉬역에 송일국과 이종혁, 도로시 블록역에 정영주와 배해선, 메기 존스역에 전수경과 홍지민 등 역대 ‘42번가’를 빛낸 배우들의 총출동으로 <브로드웨이 42번가>가 오랫동안 관객들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낌없이 증명할 예정이다. 미디어 매체 속에서 볼 수 있던 대배우들을 눈앞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가족과 함께 화려한 쇼를 만끽하고 싶다면 안성맞춤인 작품이 될 것이다.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인천공연

□ 일 시: 2023년 4월 21일(금) ~ 23일(일)

금요일 오후 7시30분, 토요일 오후 2시, 7시, 일요일 오후 2시

□ 장 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관 랑 료: VIP석 14만원 / R석 12만원 / S석 9만원 / A석 7만원

□ 관람연령: 8세 이상

□ 주최/주관: 인천문화예술회관

<붙임> 관련 사진

	
<p>포스터</p>	<p>공연사진</p>



공연사진



공연사진